

방글라데시에서의 스물두 번째 편지

김 이태, 조 진희 선교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 하시리로다’ (시 121:4)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평안을 전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실 것임을 믿습니다.

벌써 1년이 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을 다시 한 번 발견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더욱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는 아직 한국에 체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기도편지에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바꾸어 방글라데시로 들어가려고 개명 절차를 밟았고, 지난 3월 28일 출국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아내의 몸의 이상증상으로 검사를 하던 중에 간에 혹이 7.5cm 발견되어 5월 18일 수술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유방암 병력이 있기에 혹이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경계성 종양으로 수술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방글라로 들어가기 전에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하면서도 한편 늘 약한 우리의 육신으로 인해 염려를 끼치게 해드려서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함이 큼니다.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어 더 힘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두 손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글라데시는

현재 방글라데시의 코로나 상황은 하루에 7천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며 검사자의 50% 감염률로 모든 항공이 끊어진 상태였고, 이번 주부터 몇몇 항공사가 운항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아공 변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인도에서 받았던 백신조차 인도에서도 엄청난 확진자들 때문에 금지된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 선교사님들과 한인들이 감염이 많이 되어 심각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는 것이 왠지 죄인이 된듯하여 더 중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청년사역

저희는 한국에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ZOOM)으로 현지 청년 스태프들과 소통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변함없는 열정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쁜지 모릅니다. 방글라로 돌아가면 무슨 선물을 사갈까 행복한 고민도 함께 하게 됩니다. 청년 스태프들은 시골의 각 셀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록다운 상태여서 움직이지 못해 전화로 심방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년 스태프들의 건강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셀 그룹 방문



셀 그룹 말씀 묵상 나눔

아논도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기도해주실 청년은 **아논도**라는 청년입니다.

힌두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 집에서 쫓겨나 저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역을 하는 청년입니다.

다들 수도 다카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데 **아논도**는 다시 시골로 들어가서 노방전도와 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줌으로 미팅 중에 보니 전기상태가 좋지 않아 이리저리 휴대폰을 옮겨 다니며 회의에 임하는 모습을 보던 중 양철판으로 된 집에서 40도가 넘는 더위에도 기쁨으로 사역보고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논도**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기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아들이 되기를, 또한 아논도를 통하여 가족과 친구들과 온 방글라데시가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 사역자 아논도



빼출리아교회(마당교회)

저희는 앞으로 아내의 수술이 끝나면 속히 방글라데시로 들어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지 많이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1, 5월 18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주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 2, 방글라데시에 현지 목사님들과 청년 스태프들의 안전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 .
- 3, 코로나 감염으로 힘들어 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 4, 앞으로 청년사역의 확장과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기를 함께 기도해주십시오.